

# FASHION

2024 Special Exhibition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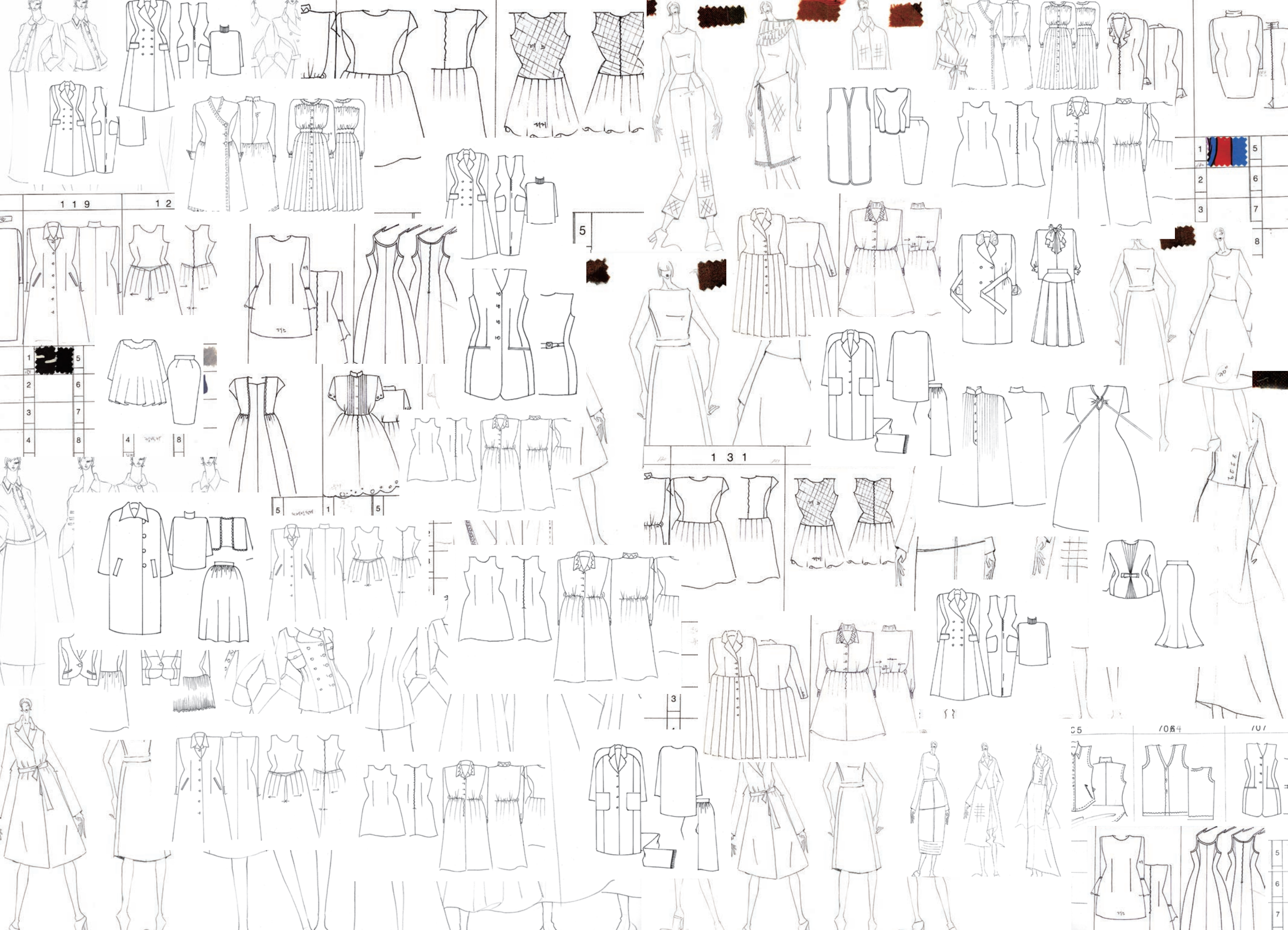
FASHION DESIGNER  
문화를  
이끈 사람들

대구섬유박물관

대구 대구섬유박물관

# DESIGNER

# DAEGU TEXTILE MUSEUM



1 1 9

1 2

5

1

5

2

6

3

7

8

1

5

2

6

3

7

4

8

4

8

5

1

5

1 3 1

3

05

1064

107

5

6

7

# FASHION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총괄 박미연\_대구섬유박물관장  
기획 문재은  
미술감독 허정선  
진행 김경현, 김정현, 권세례, 이채빈, 방제빈, 김동현, 이연정, 이효진  
전시지원 이종석, 이미지, 임교순, 이성원, 안상희, 엄도영, 우현명  
협력기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  
사진촬영 석진화

## 도움 주신 분들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경운박물관, 루비나, 박춘무, 변지유, 서울역사박물관,  
설윤형, 양성숙, 오은환, 이상봉, 임선옥, 임응식아카이브, 임지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현대의상박물관, 한영수문화재단, KTV국민방송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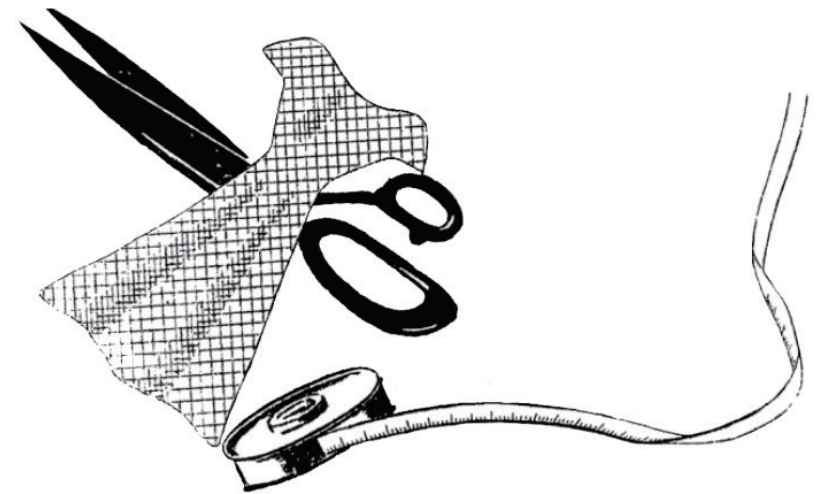
1. 이 책은 대구섬유박물관 특별전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2024. 5. 2.~8. 4.)의 전시도록이다.
2.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다.
3. 자료의 출처는 현 소장처를 기록하였으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모두 대구섬유박물관의 소장 자료이다.
4. 자료의 명칭은 가능한 원 소장처의 기준에 따랐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경우 공식 명칭을 표기하였다.
5. 자료의 세부 사항은 명칭, 디자이너, 제작연도, 크기, 소장처 순으로 기재하였다.

# DESIGNER

발간사	6
전시를 열며	7
1. 코리아, 패션을 만나다	10
2. 디자이너, 패션을 만들다	26
3. 디자이너, 문화가 되다	90
연계행사	142
전시공간	144

“디자이너가 태born는 건 어떻게요?”  
나는 그게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모양이  
그런 직업이 있다는 사실 역시  
처음 알았다.

디자이너 노라는



대구섬유박물관은 섬유와 패션을 주제로 연구·전시하며, 섬유산업으로 뿌리내린 대구의 지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50~1960년대 패션디자이너를 활동 시기와 특징별로 기록하여 ‘한국 패션 문화의 탄생’이라는 학술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로 학술총서에서 연구된 자료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패션은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6·25전쟁 직후는 구호물자에 의지하던 황폐한 시기였습니다. 마냥 우울한 시대가 아니라 근대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폐허의 거리에 즐비한 양장점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패션의 역사는 패션디자이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현대패션의 역사가 시작되는 1950~1960년대의 복식문화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 패션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에서는 한국 문화를 현대화하는 데 앞서서 이끈 패션디자이너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패션의 싹을 틔운 1,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서구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대화하면서도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 패션의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최경자, 노라노를 비롯해서 백희득, 한동식 등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이너들의 의상으로 당시의 명동 거리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시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로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FGI) 회원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FGI는 우리나라 패션사의 한 축을 담당한 국내 대표적인 디자이너 단체입니다. 이렇게 국내 굴지의 디자이너 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도 드문 예입니다. 전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장현미 회장님을 비롯한 FGI에 감사를 전합니다. 전시에 참여해 주신 이상봉 디자이너와 루비나, 박춘무, 변지유, 설윤희, 양성숙, 오은환, 임선옥, 임지윤 디자이너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패션계의 박물관 전시 참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을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순식 이사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전시를 위해 애쓴 박물관 직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 발간사 전시를 열며

많은 사람들이 1950~60년대를 회상할 때 곤궁하고 열악한 환경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한영수가 촬영한 ‘반도호텔을 지나가는 패셔니스타’의 모습은 피폐한 사회 속에서도 당당히 멋을 추구하는 패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 패션 문화를 이끌어 온 패션 디자이너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코리아, 패션을 만나다’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현대 패션 문화를 살펴봅니다. 대구로 피난 온 최경자가 「국제양장사」를 설립하고 낙하산 조각으로 블라우스를 만든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2부 ‘디자이너, 패션을 만든다’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활동한 초기 디자이너들의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3부 ‘디자이너, 문화가 되다’에서는 현재 우리의 한국 패션 문화를 이끌어온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며, 패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예연구사 문재은

# 한국패션

## 1950 to 2000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1946

서라벌양재학원  
개원

1955

『여원』 창간  
대한복식연구회 설립  
춘추양재학원 개원  
이종천 디자인 연구소 개원



1956

노라노  
패션쇼 개최

1959

『월간 모오드』  
창간



1960

대한복식연구회  
신사복 패션쇼

1961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설립  
오리엔탈양재학원 개원  
국제복장학원 개원



1965

『주부생활』 창간



1967

『여성동아』 창간



『의상계』 창간

1978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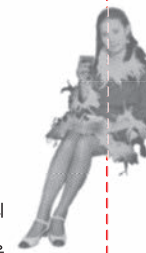
1984

『월간 멋』 창간



1985

한국패션협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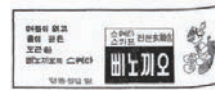


뉴스타일

한동식 한양양점	최경자 국제양장사	이종천 살롱 드 모드	윤현경 뷔그양장점	최금린 라·모오드양장점	한희도 보그양장점 HAN
오승욱·심명언 송옥양장점	노라노 노라노의 집	홍명애 우리양장점	백희득 파랑새양장점 크리스티나양장점	조원자·조원주 에쁘다양장점	김순희 제일편물 제일양장점
김경희 마드모아젤	서수연 아리사양장점	문신덕 크로오버양장점	이성우 이성우양복점	김필중 뉴스타일양장점	오경환 노블양장점

이병복 네오 살롱	이용렬 SALON·20·ANS	도재은 도재은살롱	윤정옥 윤스모드살롱	김복환 세실양장점	문광자 드맹의상실	김정애 비합살롱
박영철 마이애미양장점	한계석 로라 살롱	오은환 꾸망의상실 오은환부띠끄	박치우 GQ양복점	김기택·최광호· 이상덕·박의상	조영자 트로야조	이미원 이미원양장점
오한근 파리양장점	김정수 이사벨라	진태욱 디 웨네 양장점 프랑소와의상실	박윤정 미스박테일러	박문자 모드·살롱	잭기성 잭기살롱	윤영섭 윤스팻선살롱 윤스팻선부띠끄
진덕노 키티양장점	윤영숙·한영수· 이은주·배규정	하영애·김연· 김수선	서이순·윤순모· 박정일	지미리 루크양장점	이신우 그래머양장점	윤복희 신세계 백화점 내 기성복 전문 특별코너 배천범
양드레킴 살롱 앙드레	양금철 엘리제양장점	조경희 살롱 조세핀 부띠끄 조세핀	안성공 안모드살롱	조경애 트로이카의상실	소영희 석란의 집	김정애 석경의상실

문경희	이원재	강귀희	루비나	정진숙	임선옥
김희자	신혜순	신혜옥	김영세	손정완	김건이
이철우	변지유	양은배	조은숙	설영희	정소미
배 용	최복호	이광희	김 훈	김화숙	이인영
김선자	강기욱	양성숙	김 청	신 용	박재완
박동준	김희진	지춘희	최현숙	이 림	박연미
김창숙	조명숙	이유덕	이경자	박춘무	김해숙
한혜자	안유정	조귀남	윤화녕	우영미	
이규례	박윤수	설윤형	임태수	안혜영	
한상철	김미경	이규태	김동순	최연옥	
이훈미	하용수	임상민	김영일	홍은주	
신강식	이수영	신현장	정미경	장현미	



# 코리아, 패션을 만나다.

# 1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의복 변화를 이룬 시기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복식문화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미군이 남긴 물자를 옷감으로 활용하고 구제품으로 섞여 들어온 서구의 옷을 접하며 사람들은 세계의 패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패션이나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 패션에 대해 안다는 사람들조차 일본 양재지 『드레스메이킹』, 『소잉』, 미국 잡지 『보그』나 백화점 카탈로그에 나온 옷을 따라 만들어 입었다.

1955년 창간된 여성잡지 『여원』에 양장점의 작품이 패션 화보로 소개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발표하는 ‘디자이너’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양장점 시대’를 지나 새로운 ‘디자이너 패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적 경향이 어떤지  
사전 지식도 없이  
모든 것을 오로지  
내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_디자이너 최경자





군용 담요 코트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13.4 어깨너비 43 품 60.5  
1950년대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현대의상박물관 소장

1950년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물자 부족으로 미군이 남기고 간 군용 담요로도 옷을 만들어 입었다. 군용 담요로는 코트를 만들어 멋을 부리고 방한을 대비하였다.

# THE BEGINNING OF FASHION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채의 패션으로 해방의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연달아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더욱 피폐한 환경을 직면해야만 했다. 원조 밀가루 포대가 속옷이 되고 군용 담요로 코트를 만들어 겨울을 나던 시절이었다.

억눌림은 새로운 패션으로 표출되었다. 미군의 낙하산 조각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멋을 아는 여성의 아이템이 되고 명동 거리에는 '구렛빠 코트'를 입은 시인 박인환의 스타일들이 넘쳐났다.

# FASHION IN DAEGU

“1·4후퇴의 밤은 유난히 길고 무척이나 추웠다. 오직 재봉틀 세 대만 가지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날 열차에 몸을 실은 어느 누구에게 기구한 사연이 없겠나만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길을 나서자니 새삼 설움이 복받쳤다.

일주일을 달려 대구에 도착했다. 그렇게 대구 피난살이가 시작되었다.

목욕탕을 갔다 집에 오는 길 문 닫힌 점포가 눈에 띄었다. 안을 보니 양복점으로 기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주인에게 가게를 빌려 달라 통사정한 끝에 대구의 「국제양장사」가 처음 문을 열게 되었다.

처음 만든 옷은 ‘뉴퐁’이라는 옷감으로 만든 블라우스였다. 뉴퐁은 너무 부드러워 바느질이 어려웠지만 부드럽고 하늘거려 꽤 인기가 많았다. 폭이 좁은 스커트, 차이니즈 스타일 등 당시 유행하는 옷을 잘 만드는 것으로 소문이 나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다.

그러나 기쁨도 만끽할 새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았고, 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_ 최경자, 『날개를 입은 사람들의 어머니』 중에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대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육, 문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최경자 (1911~2010)는 1951년 가족들과 대구로 피난와 1954년까지 달성공원 인근에 「국제양장사」를 개업하고 「최경자복식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대구에서의 성공은 1954년 12월 명동에 「국제양장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최경자는 한국 현대 패션문화를 이끈 핵심 인물로 디자이너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국제복장학원」을 설립하여 디자인 교육 및 디자이너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낙하산지 블라우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50.8 어깨너비 40.5 품 51.5  
 1950년 이후

대구 피난 시절 「국제양장사」를 운영한 최경자는 미군이 남기고 간 낙하산 조각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었다. 이 블라우스는 낙하산 조각이 부족하여 유사한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지만 당시에는 '낙하산 블라우스'라고 하였다. 당시 나일론 유행을 이끌며 최경자가 서울 명동에서 「국제양장사」를 개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뉴똥 원피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04 어깨너비 40 품 30  
 1950년대

1950~60년대 유행하던 '뉴똥' 소재로 만든 원피스다. 뉴똥은 원래 한복감으로 많이 쓰였지만, 유연하여 부드럽게 주름이 생겨 플레어 드레스로도 많이 만들어졌다.

# LIMB EUNG SIK PHOTOGRAPH



폐허의 명동  
사진 임응식  
1950년대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명동은 새벽과 아침, 저녁과 밤이  
각기 다른 얼굴이었어요.  
모여드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뭔가에 몰두하고 희망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다이내믹함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_ 디자이너 한계석



반도호텔을 지나가는 패셔니스타  
사진 한영수  
1956-1963년  
한영수문화재단 소장

# HAN YOUNG SOO PHOTOGRAPH

# FASHION IN MYEONG- DONG

“진열된 유리창 앞으로  
겹저고리 바람의 젊은 여인이 지나가고  
신문 파는 어린이의 발걸음이 멈추어진다.  
정녕 봄은 명동의 진열장으로부터 오는가!”

.. 『경향신문』 1959년 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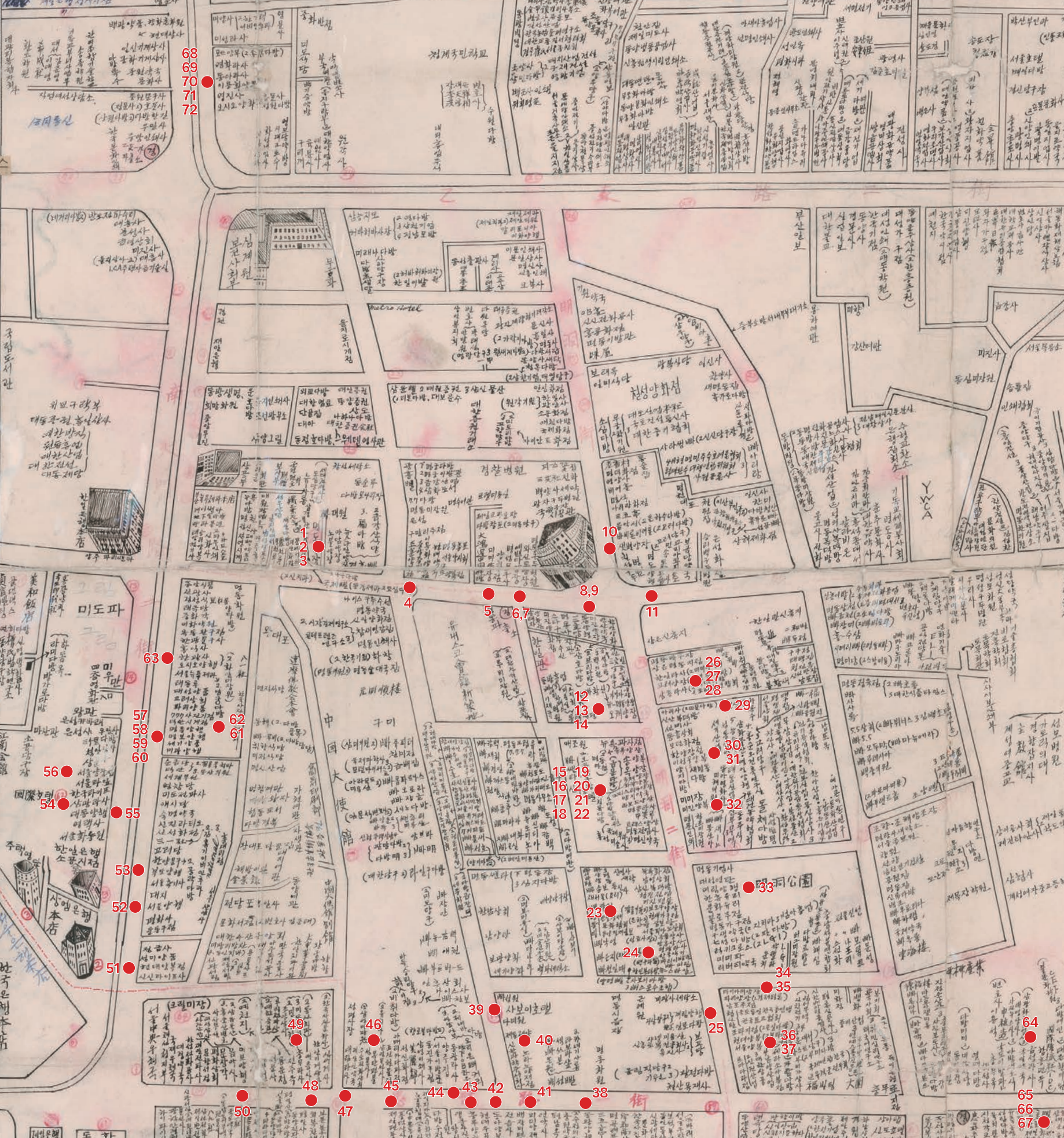
전쟁 직후 「송옥양장점」, 「한양장점」, 「아리사양장점」, 「국제양장사」 등 이름난 양장점이 명동에 자리를 잡고 양재와 미용 학원들이 정착하면서 폐허의 명동은 일찌감치 패션일번지가 되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 스타일의 플레어 스커트와 맘보바지를 입고 부지런히 ‘패션’을 소화하는 멋쟁이들이 없어도 나와 자신을 표현하는 해방구였다. 서구의 영화와 잡지는 그렇게 명동거리를 변화 시켰다.

근대화 정책이 시행되며 사회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표준간소복’, ‘신생활복’으로 복장을 개량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대중의 패션 욕구와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 MYEONGDONG

## BOUTIQUE



- |             |             |            |
|-------------|-------------|------------|
| 1. 노블양장     | 25. 계림양행    | 49. 총무라사   |
| 2. 아담양장     | 26. 한일라사    | 50. 미보양행   |
| 3. 뉴스타일양장   | 27. 고려양장    | 51. 현대양복점  |
| 4. 조훈양복점    | 28. 삼흥라사    | 52. 서울양행   |
| 5. 미미양장     | 29. 아리사     | 53. 부도양행   |
| 6. 예쁘다양장    | 30. 한양장점    | 54. 삼광라사   |
| 7. 와신도양장    | 31. 이성우양복   | 55. 대동양행   |
| 8. 도심양행     | 32. 미진양복    | 56. 서울양장점  |
| 9. 미진양장     | 33. 미림양행    | 57. 명종양행   |
| 10. 셋별양장    | 34. 마이아미양장  | 58. 명보양행   |
| 11. 명동양행    | 35. 파리양장    | 59. 세기양품   |
| 12. 가나다양장   | 36. 현대양복    | 60. 미광양행   |
| 13. 뉴-명동양장  | 37. 서울양복    | 61. 파리양품   |
| 14. 오캐양장    | 38. 동광양행    | 62. 대성양품   |
| 15. 뉴욕양장점   | 39. 프랑소와의상실 | 63. 오시오양행  |
| 16. 송옥양장    | 40. 노라노양재점  | 64. 금성라사   |
| 17. 국제양장    | 41. 미미양재    | 65. 삼호방직   |
| 18. 화창양복    | 42. 동아양복    | 66. 대전방직   |
| 19. 그리스티냐양장 | 43. 총무양행    | 67. 조선방직   |
| 20. 라모드양장   | 44. 동광라사    | 68. 미성라사   |
| 21. 명동라사    | 45. 제일편물    | 69. 모드양복   |
| 22. 트래스양장   | 46. 목단편물    | 70. 영화라사   |
| 23. 보오구양장   | 47. 대림라사    | 71. 동아라사   |
| 24. 명광라사    | 48. 최복환양복   | 72. 이용화양복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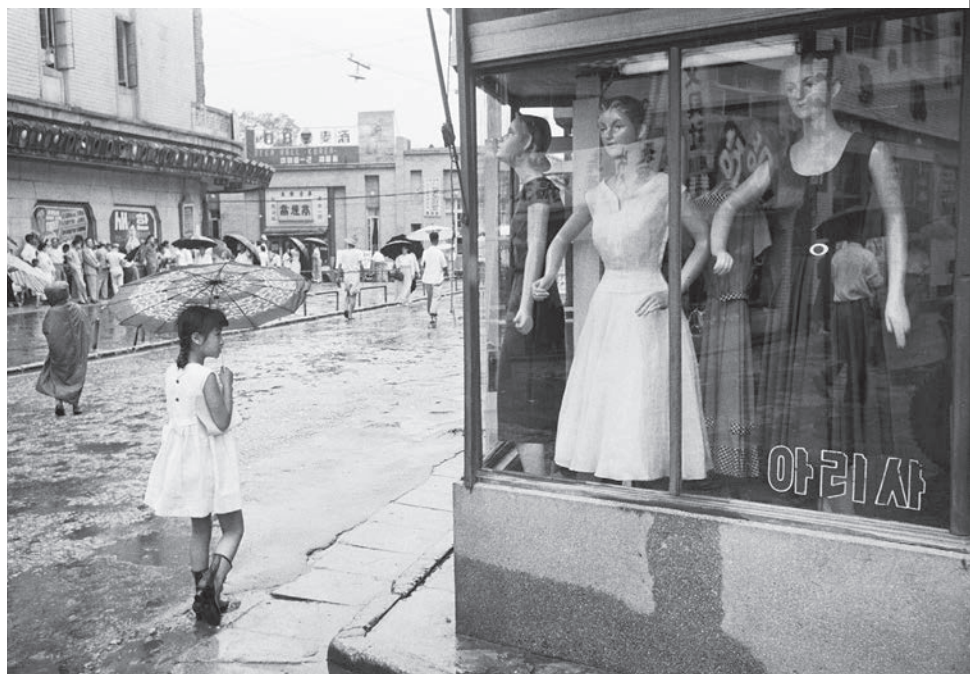
『서울안내지도』  
1961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좌상.우상|  
 「송옥 양장점」의 여인  
 사진 한영수  
 1956-1963년  
 한영수문화재단 소장

|좌하|  
 「아리사 양장점」 앞을 지나가는 아이  
 사진 한영수  
 1958년  
 한영수문화재단 소장

|우하|  
 명동 양장점 거리 풍경  
 사진 한영수  
 1956-1963년  
 한영수문화재단 소장



# 디자이너, 패션을 만든다.

“나는 옷을 통해  
여성의 몸의 움직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존심을 갖게끔 노력했다.”

\_ 디자이너 노라노

## 2

우리에게 디자이너의 이미지는 화려하다. 패션쇼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디자이너의 모습은 마치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테일러 Taylor, 드레스메이커Dressmaker가 등장하던 때만 하더라도 옷 만드는 일은 입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당시에도 전통과 유행은 존재했지만 그 문화를 이끌어 간 것은 만드는 사람이 아닌 입는 사람의 영역이었다.

과거와 현재,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 디자이너의 가치와 영역은 기술과 작업에서 나아가 무한하게 확대되었다. 디자이너는 옷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의 분위기나 시대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의 유행을 선도하며 한국의 패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패션디자이너, 그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나라 초창기 디자이너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전통의상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더해 시대의 유행을 주도했다. 대중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착용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세계의 트렌드를 이으면서도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현대 패션의 원형을 만들고, 대중의 패션 문화를 이끌어 나갔다.



# New Look

1950년대 패션 트렌드는 뉴룩New look이었다.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자신의 첫 패션쇼에서 선보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뉴룩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어깨라인, 잘록한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로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라인을 부각하는 스타일이다. 이후 니나 리찌, 발렌시아가, 지방시, 코코 샤넬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A라인, H라인, Y라인과 같은 알파벳 라인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신체 라인을 강조하는 에로티시즘의 조형 미학이 복식으로 표현된 것은 현대 패션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시즌마다 발표되는 디자이너 컬렉션은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중들은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패션 문화를 경험하며 점차 패션을 유행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 유행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파리와 뉴욕을 지나 한참 뒤다. 당시는 지금처럼 대중매체도 발달하지 않아 그 속도는 더욱 느렸다. 하지만 패션 선각자들이 자리 잡은 명동을 중심으로 세계의 유행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세미로 해드릴까요?”  
당시 세미라는 말에는  
‘유난스럽지 않게’, ‘남들처럼’,  
‘보통으로’ 혹은 ‘적당히’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다.



플레어 드레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09.9 어깨너비 35.6 품 42.6  
1962년  
한국현대의상박물관 소장

최경자가 디자인한 도트무늬 플레어 드레스다.  
스커트를 부풀리고 셔츠 칼라와 커프스를 화이트로  
매치하여 산뜻함을 더했다. 플레어 드레스는 당시  
영화 「젊은이의 양지」와 「로마의 휴일」에서 여주  
인공들이 착용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이 드레스는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착용했다.





플러 드레스  
 디자이너 노라노  
 길이 105.5 어깨너비 39 품 36  
 1959년  
 한국현대의상박물관 소장

허리는 꼭 맞게 하고 스커트는 크게 부풀린 플러 드레스로 실크 자카드 원단을 사용하였다.  
 이 드레스를 디자인한 노라노는 프랑스에서 익힌 파리의 트렌드와 입체 재단 기법을 적용하였다.

HAN DONG SIK



베이지색 린넨 여름 슈트  
디자이너 한동식  
자켓 길이 49 어깨너비 40.3 품 50.5  
치마 길이 58 허리 40  
1950년대  
한국현대사박물관 소장

한국전쟁 직후 가장 먼저 명동에 진출한 한동식의 「한 양장점」에서 맞춘 의상이다. 제 4대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가 재임 이전에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플라스틱 단추가 나오기 이전인 1950~60년대에 주로 쓰이던 카제인 소재의 단추를 사용했다.



양면 코트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96.8 어깨너비 39 품 46  
 1960년대  
 한국현대미술박물관 소장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양면 코트다.  
 소매통이 넓은 '오버 코트'의 형태에  
 한복 소재로 사용하던 단縵을 이용  
 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아이보리색 레이스 원피스  
디자이너 소영희  
원피스 길이 100.5 어깨너비 40 품 49  
슬 길이 139 너비 79  
1950년대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실용성을 생각하는 소영희가 디자인한 편물 드레스다.  
유연하고 가벼워 입기 쉽고 실을 풀어서 다시 뜰 수 있는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원피스  
디자이너 김경희  
길이 93 어깨너비 32 품 41  
1971년  
경운박물관 소장

타이트한 레이스 원피스로 몸의 선을 강조하고 레이스 소재로 밑단을 2단 레이어드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했다.



원피스  
디자이너 오송죽·심명연  
길이 94 어깨너비 35 품 47  
경운박물관 소장

명동의 「송옥 양장점」에서 만든 라운드 넥라인의 A라인 원피스이다. 짧은 치마 길이와 눈에 띄는 색감을 사용하여 젊은 감각을 뽐내고 있다.





여인들  
사진 임응식  
1956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상|  
핫팬츠  
사진 임응식  
1971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하|  
명동점경明洞點景  
사진 임응식  
1957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1950~70년대 거리에는 플레어 드레스와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활보하는 사이로 옷고름 대신 브로치를 단 한복을 입은 여성들도 볼 수 있었다. 전통과 미래가 혼재되고 새로운 패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은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상  
봄날  
사진 임응식  
1955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하  
여름날  
사진 임응식  
1955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상  
설녀  
사진 임응식  
1955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하  
명동의 여인들  
사진 임응식  
1959년  
임응식아카이브 소장



# NEW TREND



NORA NOH

양단 아리랑 드레스  
디자이너 노라노  
길이 160 어깨너비 48 품 42  
1959년  
한국현대의상박물관 소장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적 이미지를 살려 현대적인 드레스로 디자인한 옷이다.  
이 드레스는 1959년 미스코리아 오현주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참가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입은 의상 3벌 중 하  
나로 개막식에 착용하였다. 노라노는 신라시대 화랑의 복식  
에서 착안하여 이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고 한다.





청자드레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42 폭 41  
 1960년대  
 한국현대미술박물관 소장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만든 드레스이다.  
 서양의 미적 요소와 고려청자의 특색인 곡선미를  
 잘 조화시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당시에 귀했던  
 나일론 대신 모시에 폴을 먹여 실루엣을 풍성하게  
 해주는 '무지개 치마'를 속치마로 사용하였다.



양단 하이웨스트 롱 드레스 '아랑'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38.5 어깨너비 37 품 41.3  
 1963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한복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이다.  
 전통 복식과 양장의 과도기적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이웨스트 이브닝드레스로 가슴라인 밑으로 뻗어  
 내린 8개의 폭은 팔괘를 표현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 FASHION SHOW

열악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재건에 힘쓰던 1956년 10월, 명동의 반도호텔에서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노라노의 패션쇼가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개인 패션쇼였다. 노라노를 시작으로 1957년 10월 최경자의 '복장발표회'가, 1958년 11월 '김경희 디자인·쇼'가 개최됐다. 1959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 헷슨쇼'도 개최되었다. 패션쇼는 디자이너의 새로운 의상을 발표하는 창작의 공간이자 대중에게 새로운 패션을 알릴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국제패션대전」 도식화  
세로 21.1 가로 9.7  
1988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1946년 밀리터리룩, 1958년 색드레스,  
1960년대 미니드레스 등의 도식화가  
그려져 있다.



한일 친선 패션쇼  
1967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1967년 국내 최초로 한일 합동 패션쇼가  
개최된 시민회관 대강당의 입구가 담긴  
사진이다. 패션쇼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제패션대전」 패션쇼 순서지  
 디자이너 최경자  
 세로 25.7 가로 321.6  
 1988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도별 의상을  
 입을 모델 이름과 그 순서가 표시되어 있다.





# FASHION SHOW





메탈릭 드레스 '현재와 미래'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12.3 품 37  
 1957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소장

1957년 10월 최경자의 첫 개인 패션쇼에 발표된 의상이다.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치마에 러플을 층층이 겹쳐 풍성하게 표현한 모양으로 인해 술방울 드레스로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소재로 만든 의상으로 우주시대 패션의 무드를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 이 드레스는 당시 미스코리아 진 김미정이 착용하였다.



이브닝 드레스 '공작'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75 어깨너비 32 품 42  
 1963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1963년 패션쇼에서 발표된 이브닝 드레스다. 네크라인과 웨이스트 라인에 스팅글로 띠를 돌렸다. 뒷부분은 V자 형태로 넓게 파여 있고 허리에 공작새의 깃털을 늘어뜨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색동 이브닝 드레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136 어깨너비 36 품 49  
 1970년  
 한국현대미술박물관 소장

1970년 8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EXPO '70」  
 패션쇼에서 발표된 이브닝 드레스다.  
 한국의 전통미 중 하나인 색동을 서양식 드레스 스타일에  
 접목한 디자인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 New Style

196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디자이너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진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김복환의 「세실양장점」, 도재은의 「도재은 살롱」, 백희득의 「크리스티나양장점」, 윤정옥의 「윤스 모드 살롱」, 이병복의 「네오 살롱」과 같은 해외유학파 디자이너와 김봉남 「살롱 앙드레」, 박치우 「GQ양복점」, 안성공 「안 모드 살롱」, 이용렬 「SALON·20·ANS」, 지미 리 「그래머양장점」, 잭키 성 「잭키 싸롱」, 그리고 그룹으로 활동한 「라르강시엘」 소속 남성 디자이너들이 1960년대 한국 패션 문화를 주도했다. 더불어 이용렬, 진태옥, 오은환, 트로아 조, 설윤형 등 1980년대 이후 한국 패션 문화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1년 '간소복 입기 운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옷차림은 정부의 통제를 받기도 했다. 통제와 억압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디자이너들은 세계의 트렌드를 잇는 의상을 발표하며 대중의 패션 문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옷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과 사랑, 이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이야기를 옷 안에 담고  
싶습니다.”

\_ 디자이너 앙드레김



자켓, 원피스  
 디자이너 백희득  
 자켓 길이 55 어깨너비 35.3 품 43  
 원피스 길이 95.5 어깨너비 37.5 품 41  
 1960년대  
 경운박물관 소장

백희득이 디자인한 의상으로 라인이 강조된 타이트한 원피스와 테일러드 더블 버튼 숏 자켓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백희득은 1959년 동생 백남준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양재를 공부하고 돌아와 명동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원피스  
 디자이너 이용렬  
 길이 103.3 어깨너비 39 품 50  
 1960년대

색드레스는 몸의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심플하지만 세련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이용렬이 1960년대 젊은 여성을 위해 디자인한 의상이다.



원피스  
 디자이너 김필중  
 길이 95 품 43  
 1960년대  
 경운박물관 소장

푸른빛의 면 소재 원단으로 제작된 슬리스리스 원피스로 「뉴스타일양장점」을 개업한 김필중이 디자인하였다. 촘촘히 잡은 게더 주름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허리라인을 강조할 수 있도록 벨트를 따로 구성하였다.





원피스  
 디자이너 한계석  
 길이 120 화장 35.5 품 59.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직선적이고 단순한 패턴의 원피스지만 기하학 무늬, 꽃무늬 옷감 등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변화를 주었다. 이 옷을 디자인한 한계석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작 방법을 대중에 공개하여 의복 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원피스  
 디자이너 박윤정  
 길이 97.5 어깨너비 40 품 51  
 1964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라운드 넥라인과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의 미니 원피스이다. 실용적인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의상을 제안해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했던 박윤정이 디자인하였다.







벨벳드레스  
 디자이너 조세핀 조  
 원피스 길이 143 어깨너비 33 품 45  
 망토 길이 56.5 어깨너비 29  
 1960년대

벨벳 원단에 금사가 섞인 고급스럽고 우아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브닝 드레스와 짧은 망토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핀 조가 디자인한 의상으로, 1953년 제1회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된 대구 출신 강귀희가 착용했다. 조세핀 조는 1960년대 후반 검정 벨벳 망토 코트 및 슬랙스 유행을 주도했던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유럽의 경향을 반영한 의상이 많았다.



원피스, 코트  
 디자이너 앙드레 김  
 원피스 길이 89 어깨너비 43 품 37  
 코트 길이 94.8 어깨너비 50 품 43  
 1962년  
 한국현대의상박물관장 소장

1962년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벨벳 소재로 된 코트와 원피스이다. 단순한 '선의 미'를 담은 디자인에 한국 고유의 질감, 색채가 어우러져 차분한 무드 속에 화려함이 느껴진다.

이 의상은 앙드레 김이 국제복장학원에서 패션 교육을 마친 후 명동에서 양장점 '살롱 앙드레'를 개업하고 처음 디자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READY TO WEAR

“기성복에 대한 관념이 전무했던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땅에  
새로운 패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힘썼던 우리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_ 디자이너 최경자

초기의 디자이너들은 개별 고객을 위한 맞춤복을 주로 만들었다. 견본을 보고 원단만 선택해 옷을 만들기도 했지만, 맞춤식 제작 방식은 패션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행되어 경제가 발전되면서 복식 문화도 빠르게 변화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정부 주도의 ‘표준 간소복’은 기성복을 일반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명동의 디자이너들도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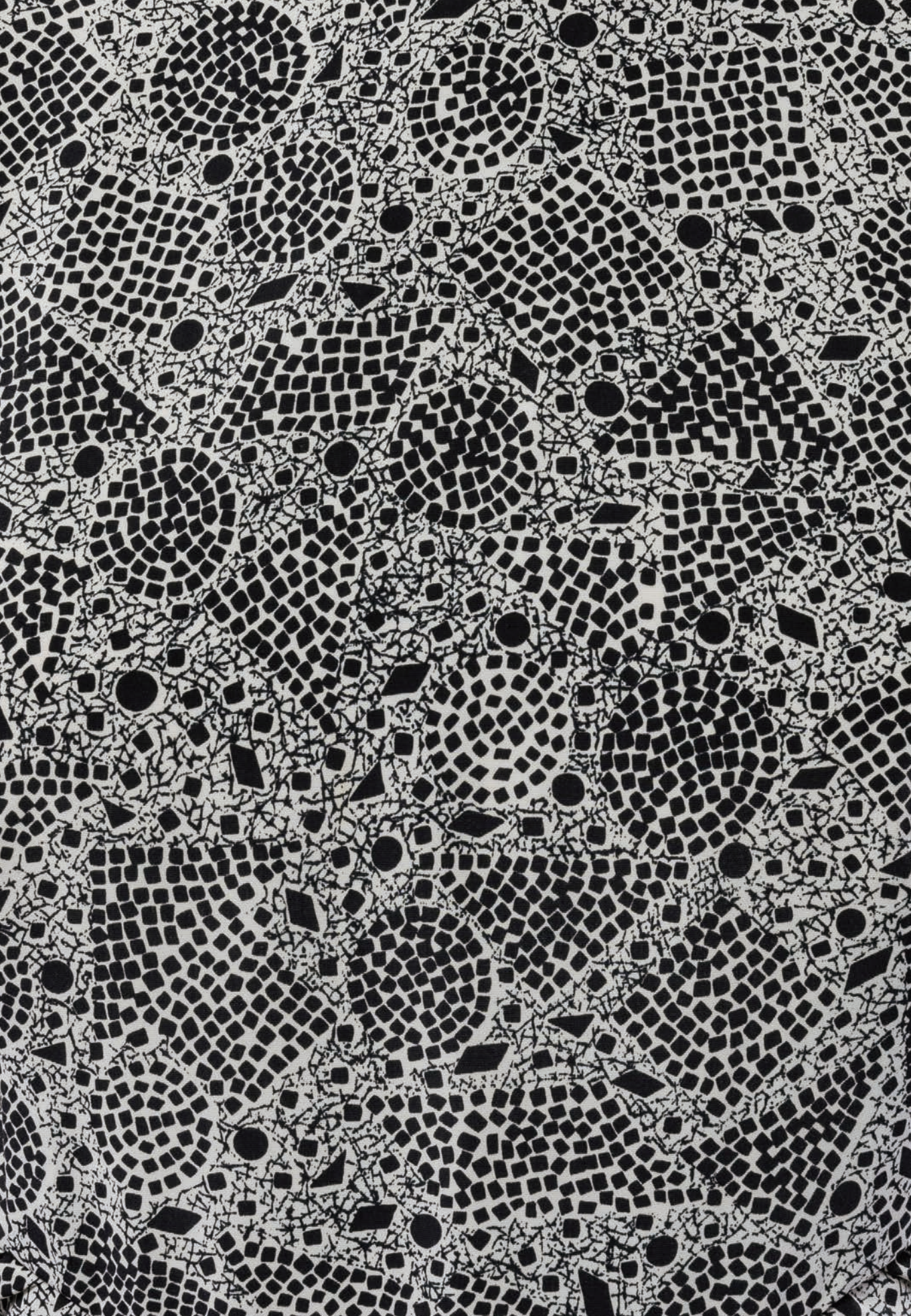
가장 먼저 기성복 시대 문을 연 노라노는 한국 평균 체격을 모아둔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을 위한 기성복을 만들었다. 최경자, 서수연을 비롯한 디자이너들도 기성복 시장에 합류하였다. 1963년부터는 디자이너의 주도로 매달 두 번의 기성복 패션쇼를 개최하여 대중의 기성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원피스  
디자이너 최경자  
길이 90.7 어깨너비 36.8 품 41  
1974년

슬리브리스 드레스로 아이보리색 바탕에 나비를 연상하는 추상무늬가 특징적이다. 이 옷을 디자인한 최경자는 아이보리색 린넨 소재를 하와이에서 직접 구입하였다고 한다.





원피스  
 디자이너 노라노  
 길이 103 어깨너비 45 품 47  
 1997년  
 경운박물관 소장

라운드 넥라인에 프렌치 슬리브로 구성된 H라인 원피스이다.  
 허리에 셔링으로 디테일을 더했으며 추상 무늬 원단을 활용하였다. 이 의상은 1963년 가장 먼저 디자이너 기성복 시대를 문 열었던 노라노가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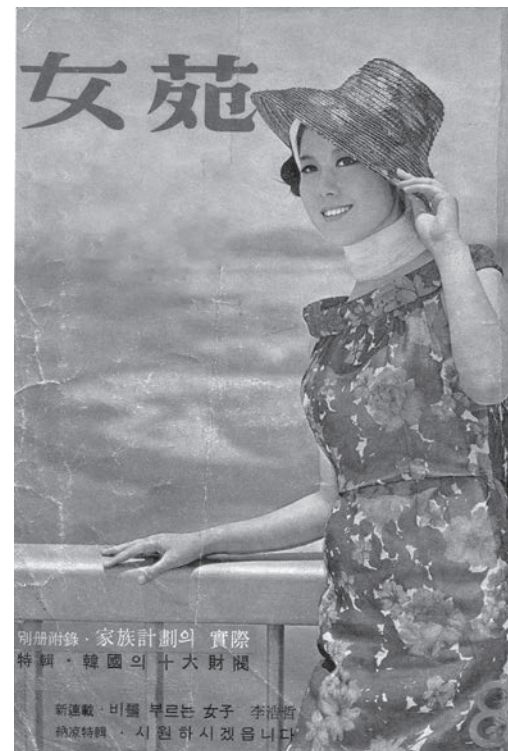
# MAGAZINE

패션잡지는 패션 트렌드를 기록하여 패션 종사자와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대 중반 여성잡지 『여원女苑』, 『여상女像』이 창간되어 패션 지면이 생기면서 패션 정보를 다루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1960년대 후반 디자이너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도하여 패션 전문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1968년 「국제복장학원」의 최경자는 『의상衣裳』을 발간하여 당시 해외 유행의 정보를 얻고 패션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패션을 경험하며 한복에서 양장으로 변화된 복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여원』, 『여상』, 『의상』, 『MODE』 등 각종 매체의 기고를 통해 해외 패션 트렌드를 대중에게 알리고, '가을철 두 가지 옷',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옷', '스마트한 가을 외출복' 등 계절과 상황에 맞는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며 대중들의 의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패션잡지  
세로 26~30 가로 18.8~25.6  
1960~80년대



# EDUCATE

명동에 수많은 양장점이 들어서면서 디자이너 주도의 양장 문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그러나 당시는 체계화된 교육기관이 없어 전문적인 양재 기술을 배우기 어려웠다. 기성 디자이너들이 양재학원을 개원하여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함흥에서 최초의 양재학원을 운영한 최경자는 1961년 3월 「국제복장학원」을 개원했다. 당시의 양재학원 교육은 재단, 봉제 외 기초적인 색채학 정도에 그친 반면 국제복장학원은 교육 과정 최초로 디자이너의 스케치 작업인 스타일화를 정식 수업으로 채택했다. 1회 졸업생으로 앙드레킴, 문경희, 박정일 등을 배출했고 이후 이용렬, 이유숙, 신혜순, 한계석, 이철우, 오은환, 배천범, 신현장, 허준, 최복호, 김동순, 이상봉 등 끊임없는 디자이너의 등용문이 되었다.

「국제복장학원」 외에도 김경애의 「경기양재학원」, 이종천의 「이종천디자인연구소」, 박순기의 「서라벌양재전문학원」 등 전국 각지에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이 설립돼 양재와 디자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제복장학원」 전경  
1963년  
한국현대대상박물관 소장



「라사라 양재학원」 안내서  
세로 21 가로 18.4  
1960년대



「노라노 양재학원」 교재  
세로 44.5 가로 19.1  
1960년대

# 디자이너, 문화가 된다.

“원칙을 파괴하고 싶다.”

- 디자이너 박춘무

## 3

한 개인이 옷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행위에는 그 시대의 정신과 개인의 미의식이 반영된다. 패션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에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발상, 정서적인 공감, 협업과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대중과 개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높은 이해가 강조되는 이유기도 하다.

양재학원이나 대학·해외 유학으로 배출된 디자이너의 질적·양적 성장은 우리나라 패션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브랜드 콘셉트화 하여 고유의 패션 문화의 입지를 다졌다.

2000년대 이후 패션디자이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해외 진출의 기회도 많아졌다. 디자이너들은 기성복 패션쇼를 통해 기성복의 패션화, 고급화의 계기를 마련했고 다양한 해외 컬렉션 참여로 우리 패션을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 COLLECTION

“디자이너는 바람이고 물이어야 한다.  
어느 잔에 담아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_ 디자이너 이상봉

1980년대 이후, 패션이 산업화의 길을 지나 문화로 정착되고 세계화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 정기적인 패션쇼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디자이너들은 패션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디자인의 독창성’, ‘인재 육성’, ‘유통 질서의 확립’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 도모를 위해 1990년 「서울패션협의회SFA」를 창설했다. 그해 11월 23일, 처음으로 디자이너 정기 패션쇼인 ‘SFA 컬렉션’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컬렉션 문화를 활성화하였다. 첫 컬렉션에는 1970~80년대 한국 패션 문화를 이끌어 온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12명이 참가해 그간 취약했던 홍보·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 패션계가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서울패션협의회SFA」는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SFAA」로 통합되었다. 2004년 11월부터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SFAA」,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KFDA」, 「뉴웨이브NWS」가 공동으로 ‘SFAA·서울컬렉션’을 개최하며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컬렉션이 통합해 우리 패션이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서울패션워크’가 개최되었다. ‘서울패션워크’는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적인 매칭을 통해 국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디자이너 브랜드의 발굴·육성을 통해 아시아 패션의 허브로서 입지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





# THE FASHION GROUP INTERNATIONAL KOREA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FGI KOREA」는 뉴욕에 본부를 둔 「THE FASHION GROUP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이다. 1978년 설립하여 47년 역사를 가진 FGI KOREA는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중심이자 한국 패션의 아카이브로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들과 50여 명의 문화예술계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의 역량과 자원을 극대화하여 의료지원 및 복지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FGI KOREA는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미학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에 대한 후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패션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OH EUN 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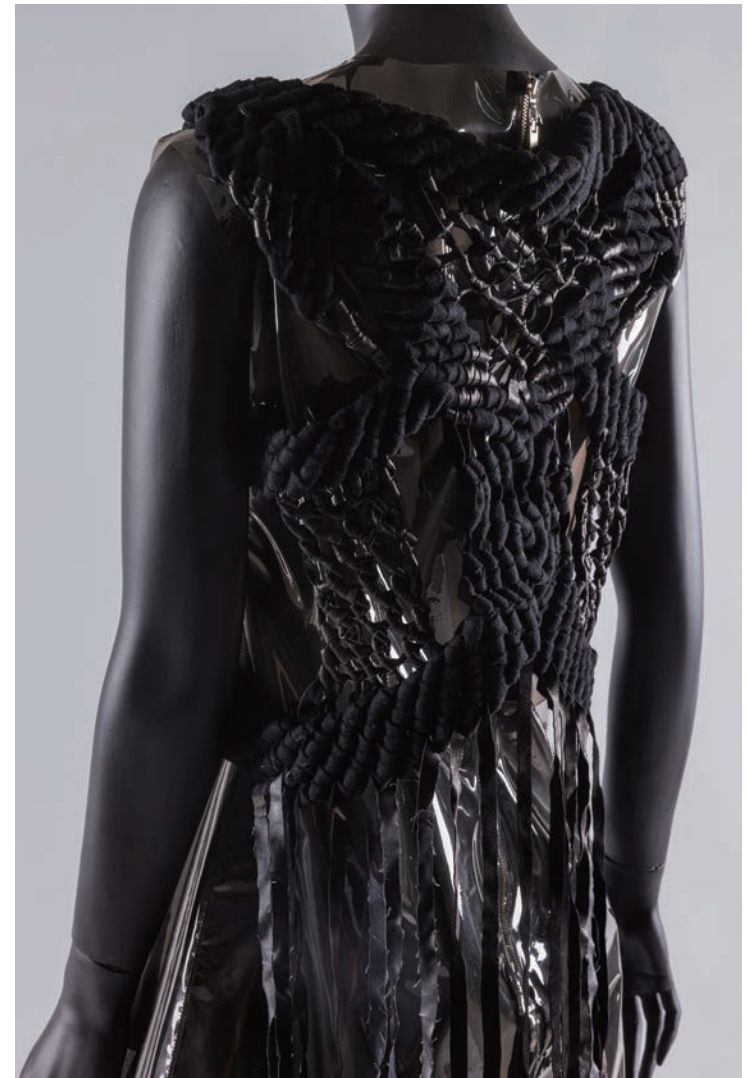
「Kumann OH EUN HWAN」

서양화를 전공하다 1964년 국제복장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1965년 「꾸망의상실」에서 1979년 「오은환 부티크」로 이어지며 오프 쿠티르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적가치를 기성복과 맞춤복 사이에서 고감도로 표현해내는 디자이너로 세계 패션그룹 한국협회FGI와 SFAASeoul Fashion Art Association, 한국 포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Basket weaved futuristic style vest  
 디자이너 오은환  
 길이 138 어깨너비 46  
 2012년  
 오은환 소장

2012년 FW SFAA Collection에서 발표된 작품이다.  
 가죽을 엮어서 인체의 곡선미를 드러내고 새롭게 구  
 조화했으며 대조된 감각의 패브릭 연출로 엘레강스  
 퓨처리스틱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 RUBINA

「RUBINA」

1970년대 주목받던 톱모델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예명 'RUBINA'를 브랜드명으로 1980년 패션디자이너로 전향하였다. 보헤미안적인 시그니처와 소재 탐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정교한 디테일이 주는 감각적 요소들을 의상에 집목하여 패션의 색다른 미감을 추구하였다.



외비우스의 띠  
디자이너 루비나  
길이 161  
2007-2013년  
루비나 소장

외비우스의 띠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의 선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제작한 작품이다. 은색 끈 장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울동성과 어떻게 뭉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옷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김소월님과 벗  
 디자이너 이상봉  
 길이 81 어깨너비 42 품 40.5  
 2007년  
 이상봉 소장

2007년 이상봉에디션 모스크바 론칭  
 패션쇼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김소월  
 시인의 시 '님과 벗'이 표현되었다.



## LIE SANG BONG

「LIE SANG BONG」

한글, 조각보, 태극 문양, 단청 등 한국적인 소재에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한 디자인으로  
 세계 무대에 주목받으며 대중성도 확보한 K-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다.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에 「이상봉 부티크」를 론칭한 후 지금까지 디자이너를  
 넘어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3년 SFAA에 가입하여 첫 컬렉션에 참가한 이래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등 지금  
 까지 200회가 넘는 패션쇼는 이상봉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아리랑 드레스  
디자이너 이상봉  
상의 길이 61.5 어깨너비 35 품 38  
치마 길이 116.5 허리 35  
2013년  
이상봉 소장

2013년 청주 비엔날레 초청 전시 및 한글날 특집  
패션쇼에 선보인 작품이다.  
139년 전 최초의 '아리랑' 악보 이미지에 '아리랑'  
가사를 이상봉이 직접 써서 자수로 수놓았다.



## PAK DONG JUN

「코코 박동준」

1972년 패션디자이너를 시작한 그녀는 대구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이다. 국내외 예술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순수미술과 패션디자인이 조응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과 소통으로 더 큰 가치의 패션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패션을 넘어 사회적 참여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드레스 '프리다 칼로의 삶'  
 디자이너 박동준  
 길이 90 어깨너비 44 품 46  
 2004년

2004년 SS SFAA Collection에 발표된 작품이다.  
 프리다 칼로의 삶과 그림이 주는 강렬한 느낌을  
 화려한 소재와 컬러 믹싱, 비즈와 자수 장식으로  
 콜라주하여 표현하였다.





## KIM SUN JA

「MISS KIM TAYLOR」

1971년 대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 김선자는 이후 30여 년간 지역을 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7년 파리 국제페스티벌 출품을 발판으로 삼아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02년 우리나라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뉴욕컬렉션에 참가하였고 현지 언론으로부터 '드레스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가 패션계에 남긴 발자취는 국내 디자이너들이 국제적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었다.



드레스 'LOTUS'  
 디자이너 김선자  
 길이 105.3 품 41.5  
 2002년

2002년 SS New York Collection에서  
 발표한 의상이다.  
 블랙과 화이트로 대비되는 연꽃 문양을  
 통해 'Pretty Woman'을 표현하였다.



의상패턴  
 디자이너 김선자  
 세로 42.6 가로 29  
 2000년대

김선자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발표한 패턴을  
 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디자인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초기 시절 옷과 패턴을  
 보며 다시금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 SUL YUN HYOUNG

「SUL YUN HYOUNG Boutique」

떡살, 조각보, 단청, 베갯모 등에서 착안한 전통 색채와 무늬로 현대 의상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1964년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하고 1975년 「SUL YUN HYOUNG Boutique」를 설립하였다. 한국미의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패션디자이너로 수십 차례 해외 패션쇼에서 의상을 발표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워다-역음속의 어울림  
 디자이너 설윤형  
 2003년, 2019년  
 길이 283 어깨너비 37  
 설윤형 소장

2003년 FW SFAA Collection과 2019년  
 DDP 아카이브 전시에 발표된 작품이다.  
 바디 위에 실크 끈으로 위빙 작업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화된 예술적 형상으로  
 재해석하였다. 동서양의 화려한 모티브가  
 표현된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 오리엔  
 탈리즘으로 완성하였다.



# PARK CHOON MOO

「DÉMOO」

장식과 색채 사용을 절제한 현대적인 감각으로 파격적인 멋을 보여주는 디자이너이다. 기존 여성복의 이미지를 깬 중성적인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다. 1987년 국제복장학원에서 수학 후 이듬해 브랜드 「DÉMOO」로 1999년 프랑스 파리 컬렉션을 비롯해 해외 패션쇼에서 주목받았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 입점하여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Untitled  
디자이너 박춘무  
길이 138 어깨너비 56.5 품 65.2  
2023년  
박춘무 기증

2023년 FW DÉMOO Collection 작품으로,  
어디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에 따라 전  
혀 다른 모양새를 띠며 다채로운 감정을 불  
러일으킨다. 불규칙성과 의외성, 반전 등이  
혼재하는 데무 컬렉션의 다면성을 의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YANG SUNG SOOK

「Y&M」

1978년 기성복 브랜드 디자이너에서 1987년 개인 레이블 「Y&M」을 론칭하였다. 소재의 차별화가 디자인의 차별화라 여길 만큼 소재 스타일링에 중점을 둔다. 소재의 이질적인 접근과 다양한 낭만적인 'Y&M'의 패션디자인은 새로운 긴장감으로 30여 년간 수차례의 패션쇼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Grey Moon Blossom  
 디자이너 양성숙  
 상의 길이 99 어깨너비 46 품 57  
 바지 길이 108 허리 44  
 2008년  
 양성숙 기증

2008년 SS SFAA Collection에서 발표된 작품이다.  
 직선과 곡선, 빛의 반사와 흡수 등 다양한 텍스처로  
 이루어진 볼륨감과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도회적  
 낭만이 깃든 의상을 표현하였다.



# IM SEON OC

「PARTsPARTs」

네오프렌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 패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소재에서부터 편직, 재단에 이르기까지 자투리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적인 내면의 철학을 실천한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소재로 마니아층을 확보한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 디자이너다.





Neo Protect Coat  
디자이너 임선옥  
길이 139.3 어깨너비 48.5 품 66  
2023년  
임선옥 소장

2023년 FW Seoul Fashion Week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창의적 우스꽝스러움>은 주제로 코트 뒷면에 열대과일  
프린트로 'Happiness'를 표현하였으며, 커다란 포켓과  
재귀반사필름 등으로 하이엔드 패션 감각을 선보였다.

# BYUN G U

「BYUN.G.U Boutique」

광주 패션계의 선구자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밀라노 컬렉션 등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자이너 특유의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곡선과 직선의 조화는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된다. 또한 중세 서양의 파티를 연상하는 디자인에 식물이나 문자를 활용한 동양적 로고와 자수를 표현하거나, 모시 드레스 연작으로 동양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보석함  
디자이너 변지유  
길이 162 폭 22  
2000년  
변지유 소장

여성이 좋아하는 보석, 소중하고 귀함 그 자체인 보석을 옷으로 표현했다. 중세 귀족 부인의 의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비너스의 탄생  
디자이너 변지유  
길이 184  
1999년  
변지유 소장

1999년 FW SFAA Collection에 발표된 작품이다.  
빛과 바람에 표현되는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묘사  
하였다. 다양한 디테일과 패브릭 조형미로 바다의  
조개에서 피어난 비너스의 아름다운 자태를 표현  
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FASHION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강기옥	강미선	강숙희	강진영	강희숙	곽재근	곽재욱	구윤희	국창복	김갑만
김건이	김경희	김규환	김기택	김동순	김동혁	김두철	김미경	김복환	김선자
김수선	김순희	김 연	김연주	김영세	김영애	김영일	김우종	김정수	김정애
김종학	김지해	김창숙	김태숙	김필중	김현경	김형구	김혜련	김화숙	김 훈
김희자	김희진	노라노	도재은	도향호	라니권	루비나	류생수	문경희	문광자
문신덕	문태생	박동준	박문자	박연미	박영철	박윤수	박윤정	박의상	박재원
박정일	박춘무	박치우	윤영숙	배규정	배영진	배 용	배천범	백 파	백희득
변지유	서수연	서이순	설영희	설윤형	소영희	손일광	손정완	송지오	신강식
신성훈	신 용	신장경	신현장	신혜순	신혜옥	심명언	써니염	안성공	안윤정
안혜영	앙드레김	양금철	양성숙	양은배	여윤정	오경환	오송죽	오예종	오은환
오한근	우영미	유춘순	윤기주	윤복희	윤성준	윤순모	윤영섭	윤정옥	윤한희
윤현경	윤화녕	이광희	이규례	이규태	이 림	이미원	이병복	이상덕	이상봉
이상순	이성규	이성우	이수영	이수지	이신우	이영우	이영희	이용렬	이원재
이유덕	이유숙	이은주	이인영	이정호	이종천	이철우	이청미	이태영	이훈미
임상민	임선옥	임태수	장광호	장현미	책키성	전상진	전애경	전영임	정경자
정구호	정금자	정기자	정미경	정옥순	정옥준	정한용	조경애	조귀남	조세핀조
조수갑	조원자	조원주	조은숙	주영빈	지니천	지미리	지춘희	진덕노	진태옥
천상두	최광호	최경자	최금린	최복호	최연옥	최유미	최윤정	최태용	트로아조
하영애	하용수	한계석	한동식	한상철	한승수	한영수	한혜수	한혜자	한희도
허 준	홍명애	홍미화	홍은주	황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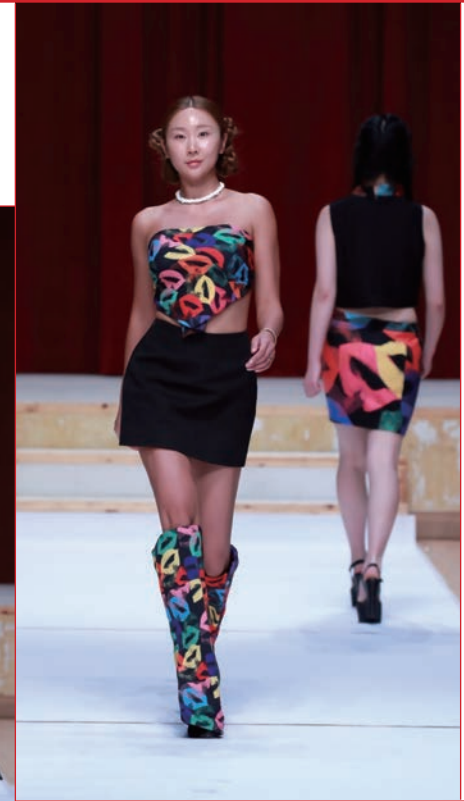
디자이너명	활동 지역	양장점·회사·브랜드명	최초 활동시기
강기욱	서울	kiok	1979년
강숙희	서울	강숙희살롱, 강숙희 레디스웨어	1968년
강진영 윤한희	서울	Obzee, HaniY, Y&Kei	1994년
강희숙	서울	강희숙 부띠끄	1972년
곽재근	대구	미아의상실, 아자리에	1968년
곽재욱	대구	모아레의상실, 곽재욱룸모아레 곽재욱패션	1983년
구윤희	대구	구윤희패션코너	
국창복	서울	스피치오	1986년
김갑만	대구	장원의상실	
김건이	대구	안디올트랜드, ENDEHOR	1999년
김경희	서울	마드모아젤	1954년
김규환	서울	환리 부띠끄	1969년
김기택 박의상 이상덕 최광호	서울	베노키오 의류점	1966년
김동순	서울	㈜울티모	1978년
김동혁	대구	아름다운사람들	
김두철 이상순	대구	K.D.C 감	1975년
김복환	서울	세실 양장점	1965년
김선자	대구	MISS KIM TAYLOR	1971년
김수선 김연 하영애	서울	샤누아르 양장점	1965년
김순희	서울	제일편물(제일양장점)	1959년
김연주	서울	김연주부띠끄	1976년
김영세	서울	에쿠우스	1980년
김영애	대구	아제리아양장점	1955년
김영일	서울	㈜발렌시아	1984년
김우중	대구	김우중 부띠끄	1981년
김정수	서울	이사벨라 양장점	1963년
김정애	서울	비함살롱	1968년
김종학	대구	가보래의상실	
김지해	서울	지해(Ji Hae)	1999년
김창숙	서울	김창숙 부띠끄	1972년
김태숙	서울	봉쥬의상실	1968년
김필중	서울	뉴스타일 양장점	1950년대
김현경	대구	엔젤 양장점	
김형구	서울	미라노 양장점	1960년대
김혜련	서울	KimHyeRyun boutique	
김화숙	서울	Promotion Fashion Eye	1986년
김훈	광주	김훈꾸뛰르	1978년
김희자	서울	김희자 부티	1970년
김희진	서울	희진스, 김희진 부띠끄	1974년
노라노	서울	노라노의 집 (House of Nora Noh)	1952년
도재은	서울	도재은 살롱	1960년대
도향호	대구	DOHO	1981년

라니권	서울	라니권의상실	1966년
루비나	서울	㈜루비나, RUBINA	1980년
류생수	서울	미도파 양장점	1960년대
문경희	서울	Moon Shop, Custume House	1970년
문광자	광주	드맹의상실	1967년
문신덕	서울	크로오버 양장점	1950년대
문태생	대구	아가페드레시아뜨리에	
박동준	대구	코코박동준	1972년
박문자	서울	모드·살롱	1966년
박연미	대구	D'moment	2011년
박영철	서울	마이애미 양장점	1960년대
박윤수 김미경	서울	박윤수울스타일, BIG PARK	1975년
박윤정	서울	미스박테일러	1965년
박재원 (박재환)	광주	도투말, PARK JAE WON Boutique	1969년
박정일 윤순모	서울	루크 양장점	1965년
박춘무	서울	㈜DÉMOO, PARK CHOON MOO	1988년
박치우	서울	GQ양복점 (Gentlemen's Quarter)	1965년
윤영숙 한영수 이은주 배규정	서울	메리노 양장점	1960년대
배영진	서울	COSEY	1993년
배용	부산	배용패션	1971년
배천범	서울	석경의상실	1960년대
백과	대구	백과의상실	
백희득	서울	파랑새 양장점, 크리스티나 양장점	1956년
변지유	광주	BYUN.G.U Boutique	1985년
서수연	서울	아리사 양장점	1955년
서이순	서울	루크 양장점	1965년
설영희	서울	설영희 부띠끄	1980년
설윤희	서울	Sul Yun Hyoung Boutique	1975년
소영희	서울	석란의 집	1968년
손일광	서울	A.G 의상실	1968년
손정완	서울	㈜손정완, SON JUNG WAN	1989년
송지오	서울	SONGZIO	1993년
신강식	서울	신강식의상실	1973년
신성훈	대구	목화의상실	
신용	서울	에모다	1986년
신장경	서울	트랜스모드	1978년
신현장	서울	와라실업	1970년
신혜순	서울	신즈부띠끄	1970년
신혜옥	서울	Hibiscus Fashion Boutique	1977년
심명언 오송죽	서울	송옥 양장점	1954년
써니염	서울	염지원의상실	1966년
안성공	서울	안 모드 살롱	1965년
안윤정	서울	앙스모드, 안윤정부띠끄	1975년
안혜영	서울	DOS Ahn hae young	1985년

앙드레김	서울	살롱 앙드레	1962년
양금철	서울	엘리제 양장점 (ELYSE 'E DRESS MAKER)	1963년
양성숙	서울	Y&M	1978년
양은배	서울	양의상실-양스부띠끄	1977년
여윤정	대구	여윤정의상실	
오경환	서울	노블 양장점	1950년대
오예중	서울	아담 양장점	1960년대
오은환	서울	꾸망의상실, Kumann OH EUN HWAN	1965년
오한근	서울	파리 양장점	1960년대
우영미	서울	㈜SOLID, SOLID HOMME, WOORYOUNGMI	1988년
유춘순	전주	조이앙스 collection	
윤기주	서울	YoonKiJoo collection	
윤복희	서울	신세계백화점 기성복코너	1969년
윤성준	대구	김갑만의상실	
윤영섭	서울	윤스 펠트 살롱	1969년
윤정옥	서울	윤스 모드 살롱 (Yoon's Mode Saron)	1965년
윤현경	서울	뷔그 양장점	1950년대
윤화녕	서울	화인니트	1982년
이광희	서울	Viscountess Boutique, 이광희부띠끄	1978년
이규례	대전	이규례 boutique	1972년
이규태	서울	이규태복식연구소	1970년대
이림	서울	이림 스타일 부티크	1973년
이미원	서울	양장점명 미상	1960년대
이병복	서울	네오 살롱	1960년
이상봉	서울	㈜이상봉, LIE SANG BONG	1985년
이성규	서울	큐패션부티	1967년
이성우	서울	이성우 양복점	1957년
이수영	미국	수영리부띠끄	1975년
이수지	서울	이수지 아뜨리에	
이신우	서울	오리지널리	1968년
이영우	서울	비쥬의상실	1967년
이영희	서울	(주)매종드이영희	1976년
이용렬	서울	벵팡의상실, SALON-20-ANS	1962년
이원재	서울	이원재의상실	1975년
이유덕	서울	LEEYOODUK boutique	1979년
이유숙	서울	유선의집	1966년
이인영	서울	캐시미어 갤러리	2001년
이정호	서울	LEEJUNGHO boutique	
이종천	서울	살롱 드 모드	1950년대
이철우	광주	남성양장점, 미담포라, Polla의상연구소	1955년
이청미	서울	CM collection	2018년
이태영	대구	화가의상실	
이훈미	서울	훈미부띠끄	1973년
임상민	서울	삼성물산, De&Co	1969년
임선옥	서울	PARTsPARTs	1998년
임태수	서울	임스모드, 메라모다	1983년

장광호	서울	카루소	1987년
장현미	대구	㈜프리앤메지스, 프리벨런스, 메지스	1991년
잭기성	서울	잭키 싸롱	1967년
전상진	대구	전상진패션	1989년
전애경	서울	뷔엔나 양장점	1960년대
전영임	서울	고우네	1987년
정경자	대구	모란양장점	
정구호	서울	KUHO	1997년
정금자	서울	Chung Geum Ja	
정기자	서울	CODIO	1986년
정미경	서울	베로니카정, 조인니트	1984년
정옥순	광주	도미패션	1965년
정옥준	서울	LONE COSTUME, JUNN.J	1992년
정한용	대구	디딤의상실	
조경애	서울	트로이카의상실	1966년
조귀남	서울	헤레나 조	1979년
조세핀조	서울	살롱 조세핀조	1965년
조수갑	서울	한울의상실	
조원자 조원주	서울	예쁘다양장점	1950년대
조은숙	서울	조은숙부띠끄	1981년
주영빈	대구	주영빈부띠끄	1993년
지니천	미국	지니천부띠끄	1968년
지미리	서울	그래머양장점	1960년대
지춘희	서울	㈜미스지콜렉션	1979년
진덕노	서울	키티양장점, 키티살롱	1960년대
진태옥	서울	프랑스와즈	1965년
천상두	대구	INNOCENCE	1984년
최경자	서울	은좌옥, 국제양장사	1937년
최금린	서울	라·모오드양장점	1950년대
최복호	대구	C&BOKO	1973년
최연옥	서울	㈜씨인터내셔널, CHOIYENOK	1981년
최유미	서울	최유미서울콜렉션	1989년
최윤정	서울	최윤정 boutique	
최태용	대구	잉비송	1988년
트로아조	서울	트로아조	1967년
하용수	서울	파라오, 베이직	1974년
한계석	서울	로라 살롱	1963년
한동식	서울	한양양장점	1950년대
한상철	서울	논노패션, 한상철의상실	1973년
한승수	서울	SOOHAN	1995년
한혜수	서울	한살롱	
한혜자	서울	한혜자 크리에이션즈, ITALIANA	1972년
한희도	서울	보그양장점, HAN	1958년
허준	서울	허준부띠끄	1977년
홍명애	서울	우리양장점	1956년
홍미화	서울	MI WHA	1986년
홍은주	서울	ENZUVAN	1987년

패션쇼 '그 시절, 그 사람, 그 옷'



원데이클래스



전시공간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 발행일

2024. 5.

#### 발행처

대구섬유박물관  
41028 대구 동구 팔공로 227  
T. 053-980-1004  
www.dtmuseum.org

#### 디자인

(주)컴엔시

#### ISBN

979-11-982764-3-8

Copyright © 2024 Daegu Textile Museum  
이 책의 저작권은 대구섬유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